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86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2.4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서 교독..... <시편 16편>.....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이며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성도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인도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성도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인도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성도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인도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같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사도행전 18:1-17>.....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사랑의나눔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사하여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감사노트

Lined writing area with 23 horizontal blue lines.

성경말씀 메시지

1-4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5-6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떼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7-8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8-11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겹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일 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12-13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했다. “이 자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14-16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들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벌이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말도 안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17 그러자 거리에 모여 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행18:1-17] 1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리인을 권면하니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말씀묵상



감사찬양

감사하여라

E B⁷ E A B⁷ E



감 사 하여라 영 원 한 주 님 께 그 의 선 하 신 행 위 를

E B⁷ E A B⁷ E



기 억 하여라 용 서 의 주 님 을 그 가 죄 를 사 하 셨 네

A Am E C#m F# B⁷



그 의 인 내 와 자 비 와 은 - 혜 측 량 할 길 이 없 네

E B⁷ E A B⁷ E



그 가 우리 의 죄 를 사 하 셨 네 와 서 주 께 경 배 하 세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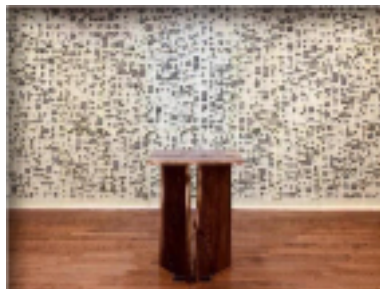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신약성경통독

50일간의 신약성경통독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마친 후에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도록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으신 후 이곳저곳으로 가며 읽게 될텐데,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을 따라 기록된 순서에 따라 구성한 것이니 참고하며 통독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우간다 선교헌금

매월 말, 우간다 선교를 위해 기억하고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월 초 그곳에서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구영삼,함윤숙 선교사님께 선교사역을 위해 10만원, 가정을 위해서 1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편지가 오면 밴드와 주보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십시오.

예배 후 탁구대회 & 닌텐도 게임대회

오늘 점심식사 후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기대하세요 ^^

2월11일 찬양은 영상으로, 점심은 없습니다

2월11일 주일은 우리 민족의 설명절 연휴기간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가시는 길목교회 식구들을 위해 이날 찬양팀은 쉬고, 점심식사는 없습니다.

2월 참여나눔예배는 둘째 주

2월의 참여나눔예배는 11일에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눔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더욱 사모하여 기대해주세요.

담임목사 해외 성지순례 사역

2월5일부터 15일까지 화목한순복음교회 팀을 이끌고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옵니다. 참여하는 교인들의 안전과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중보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